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예배 / 말씀 사경회
THE WORSHIP SERVICE OF 1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9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양 Praise	“온 맘 다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예배자”	찬양팀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느헤미야(Nehemiah) 11:1-2	한경준 집사
찬양 Anthem	“거룩한 주”	찬양대
설교 Sermon	“아직 끝나지 않았다” (It's Not Over Yet)	한병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부 흥”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헌 Offerings		다같이
*송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의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한병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보다는,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의 길을 걷는질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주저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엠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개역개정 **느11:1-2**)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settled in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people cast lots to bring one out of every ten to live in Jerusalem, the holy city, while the remaining nine were to stay in their own towns. The people commended all the men who volunteered to live in Jerusalem.” (NIV **Nehemiah 11: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5 (주일)	9/26 (월)	9/27 (화)	9/28 (수)	9/29 (목)	9/30 (금)	10/1 (토)
	삼하21	삼하22	삼하23	삼하24	왕상1	왕상2	왕상3
본문	갈1	갈2	갈3	갈4	갈5	갈6	엡1
	겔28	겔29	겔30	겔31	겔32	겔33	겔34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시83,8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28수 오후7:30)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33-8)
토요 새벽기도회(10/1토 오전6:30)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95:1-11)

지난 주일(9/18)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7)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출 14:19-31)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흔히들 “길이 없다” 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참고, 출14:29) 물론 바다 한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될 것을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 넘으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치고 힘든 현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고 짝 막힌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란? (과연) 어떤 길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잘 분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우리 눈에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일 뿐이고, 2)둘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요, 또한 거룩한 길”이며, 3)셋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